opusdei.org

단장의 메시지 2024 년 12월 16일

오푸스데이의 단장은 성탄절 인사를 보내고,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곧 시작될 희년의 중심 메시지—'희망'을 숙고하도록 초대합니다.

2024-12-16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제 딸과 아들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!

이번 달 24일 온 교회를 위한 희년이 시작됩니다. 성탄 시기는 교황님께서 희년을 위해 제시하신 중심 메시지를 말합니다. 바로 희망입니다.

베들레헴의 그날 밤은 인간의 눈에는 희망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 다. 예수님은 명성과 안락함도 없이 외로움, 가난과 추위에 둘러싸여 태 어나셨습니다. 오직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통해, 또한 몇 몇 목자들의 인사를 통해서만 환대받 으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하느 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 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연약함의 한가운데에 희망찬 미래 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. 예 수님의 탄생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 며,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와 함 께하며, 진정한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줍니다.

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"주님이 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목표를 향 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변함없은 동반자로서의 희망을 북돋우고 유지 하기 위해 더 큰 강렬함의 순간들을 요청하는" 여정입니다(Spes non confundit, n. 5, 참조). 희년은 하느님 의 자비에 근거한 확실한 희망을 더 뚜렷하게 경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"더 큰 강렬함의 순간들"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

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복잡한 순간들 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 리는 우리의 근심과 바람을 의탁하기 위해 언제나 어린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평화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 기 때문에,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 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평화는 베 들레헴에서처럼, 문제가 없는 상황만 을 의미하기보다도, 우리 각자를 향 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뜻하는 평화입니다. 이는 우 리 희망의 기초입니다.

우리의 지상 행복과 영원한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첫 번째 분이 하느님 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좌절에 의미를 줄 수 있습 니다. "Omnia in bonum(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.)" 성 호 세마리아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. 신 비롭게도, 하느님의 사랑이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자신 과 다른 사람들의 선에 기여할 수 있 습니다. "우리는 고통에서 비켜서거 나 고통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치유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고통을 받아 들이고, 그것을 통해 성숙해 가며, 무 한한 사랑으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 와의 일치를 통해 의미를 찾는 능력 으로써 치유됩니다(베네딕토 16세,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, 37, 참조)." 고 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 이 돕도록 노력하고, 무엇보다도 우 리의 기도로써 전쟁의 결과와 자연재 해로 널리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행합 시다.

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두 분께 성탄절 밤이 복잡한 감정의 시간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 더 값진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던 슬픔과 함께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의 엄청난 기쁨을 느낀 시간으로 말입니다. 우리는 두 분께 주님의탄생이 우리의 희망을 항상 지탱해주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.

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나의 가장 따 뜻한 축복을 보냅니다.

여러분의 아버지

로마, 2024년 12월 16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danjangyi-mesiji-2024nyeon-12weol-16il/ (2025-11-20)